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스스

이재명 “머슴 옷 색깔 따라 주인들 싸울 필요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머슴들이 입은 옷 색깔 따라 주인들이 왜 싸우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유세에서 “주인이 부리는 일꾼들이 편을 지어 싸울지라도 주인들이 싸울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가 작은 힘조차도 모아야 한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이 잠시 쓰는 도구일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 머슴들, 대리인들이 왜 싸우는 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는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인을 배반하려고 하는 못된 머슴들이 있어서 그 못된 머슴들의 못된 짓을 못하게 하느라 싸우는 경우가 많다”며 “머슴을 잘 가려 보고, 나쁜 짓 하는 머슴은 골라내서 혼을 내고 고쳐서 못 쓸 것 같으면 해고해서 멀리 내쫓아버려

“머슴들이 편 지어 싸우더라도 주인들은 싸우지 말아야”

“경상도 가봤더니 살기 힘들다고... 호남과 다를 바 없다”

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는 “머슴들이 편을 지어 싸우더라도 주인은 머슴들을 따라 싸우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왜 싸우냐. 우리가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서 왜 싸우냐”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경상도에 가봤더니 거기도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지방이라 더 어렵고 인구도 줄어 들고

도시에 미래가 없어 걱정해 고민이 많더라”라며 “호남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피해자들 아니냐”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인데 왜 편을 나눠 우리 국민이 싸우냐”라고 했다.

이어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

을 갈라 싸우도록 그들이 사주하고 조종해도 결코 넘어가지 말자”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우리를 대신해 일하는 그들이 진정 국민만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관찰하고 잘못하면 혼내고 잘 하면 상을 주는 정상적인 나라,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어려운 세상이 남북이 갈리고, 동서가 갈리고, 노소가 갈리고, 남녀가 갈리고, 그냥 경쟁하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고 제거하려 하고 이래서 되겠냐”라며 “이제는 정치인들에 놀아나서 국민들끼리 싸우는 그런 세상은 이제 끝내자”고 했다.

/전광훈 기자

지 면 안 내

- ▶ “전력 생산지는 전기요금 싸게... 햇빛연금 서남해안 전체로” 3면
- ▶ 강기정 시장, ‘생애 첫 투표’ 고등학생 독려 ‘투표가 힘’ 9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3일 앞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스

“올 때마다 가슴아파” 5·18 추모참배

5·18 45주기 앞두고 전국 각지서 추모 행렬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소중함 깨달아”

청소년들 “다시는 비극 되풀이되지 않아야”

“아이고, 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3일 앞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는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며 민주주의 문 앞에 선 참배객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느린 걸음으로 추모탑을 향해 나아갔다.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을 마친 단체 참배객들은 열사들의 묘소를 둘러봤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고(故) 문재학 열사 묘소 앞에 선 중년의 여성은 “죄 없는 어린 학생을, 어째서 그랬나”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주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참배를 온 목사 오모(62)씨는 “매년 찾아오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지린다”며 “세월이 흘렀으나 잊지 못할 일 같다. 광주 덕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의 한 장애인 단체에서 온 참배객들은 광주지역 최초 5·18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씨의 이야기를 듣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장애인인 김

씨가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해 잔혹하게 숨졌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청소년들의 참배 행렬도 이어졌다.

전북 전주 온고중학교 2학년 강모(14)양은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웠지만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사연을 들으니 더 와닿는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신용중학교 3학년 문모(15)양은 “학교 역사 동아리가 민주묘지 참배를 간다고 하길래 회원은 아니지만 따라왔다”며 “12·3비상계엄 사태로 잊고 있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꼭 오월 영령을 찾아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 광주지사 주최로 열린 5·18 역사 기행 전문연수에 참여, 전국 각지서 찾아온 기자들도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에 무게감을 느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을 다짐했다.

전북일보 전현아 기자는 “5월이면 뉴스를 통해 접하던 5·18이지만 그날의 함성과 아픔이 깃든 이곳을 직접 걷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며 “보고 느낀 것을 전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초심을 되새기게 됐다”고 전했다.

/박도일 기자

곡성군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일 - 25^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